

돌봄 위기 시대의 기독교사회윤리

- 트론토의 돌봄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김성호 (한국성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I. 서론

II. 돌봄 윤리의 형성과 정치적 확장

1. 정의윤리에서 돌봄 윤리로
2. 돌봄의 정치

III. 돌봄책임의 정치에서 돌봄 민주주의로

1. 신자유주의 민주주의와 돌봄의 주변화
2. 돌봄 민주주의와 돌봄의 공적 조직
3. 돌봄책임의 민주화와 돌봄 시민권
4. 민주적 돌봄과 관계적 공동체

IV. 기독교사회윤리에서 본 돌봄 민주주의의 함의

1. 인간의 관계성과 상호의존성
2. 돌봄의 소명과 이웃 사랑
3. 공동선과 돌봄의 공공성
4. 교회와 민주적 돌봄공동체의 실천

V. 결론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6.65.08>

www.kci.go.kr

• ABSTRACT •

Christian Social Ethics in an Age of Care Crisis: An Engagement with Joan Tronto's Caring Democracy

Associate Prof., Kim, Seongho (Korean Bible University)

The care crisis in contemporary Korean society extends beyond the shortage of welfare services to raise ethical questions concerning human vulnerability, interdependence, and the social organization of care responsibilities. This study employs a literature review and theoretical analysis to examine the development and political expansion of care ethics and critically explores Joan Tronto's theory of caring democracy from the perspective of Christian social ethics. Particular attention is given to a critical reinterpretation of Tronto's concepts of relationality, caring responsibility, and democratic participation within a Christian ethical framework.

Tronto's caring democracy reconstructs care as a principle of public responsibility and democratic participation. This study argues that Christian social ethics critically appropriates this framework through the perspectives of relational anthropology, love of God and neighbor, the common good, and the public mission of the church, thereby extending its normative foundation and communal practice through the concept of a democratic caring community. Care is presented not merely as a private moral virtue but as a central principle of social ethics for realizing democratic responsibility and the common good. Accordingly, the church is understood as a public community called to embody and practice a democratic caring community.

Key words: Care Ethics, Joan Tronto, Caring Democracy, Democratic Caring Community, Christian Social Ethics

I. 서론

현대사회는 초고령화와 저출산, 가족구조의 변화, 돌봄노동의 부족, 사회적 고립의 심화 등 복합적인 사회인구학적 변화 속에서 돌봄체계 전반의 재구성을 요구받고 있다. 특히 한국 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인구구조 변화와 가족 기능의 약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돌봄을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으로 이해해 온 기존의 돌봄체계가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오늘날의 돌봄 위기는 단순히 복지체계의 문제를 넘어 인간을 이해하는 방식과 공동체를 유지하는 윤리적 토대에 관한 문제임을 보여준다. 돌봄은 특정 대상이나 복지서비스의 영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공동체를 유지하는 사회적 기반이며, 인간의 취약성과 상호의존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돌봄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 국가와 공동체가 어떠한 방식으로 분담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윤리적 질문을 제기한다.

따라서 요구되는 것은 돌봄을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려는 관점을 넘어, 인간과 공동체를 이해하는 핵심 윤리 원리로 재정립하는 일이다. 이 같은 요청에 따라 돌봄 윤리는 정의와 권리를 중심으로 형성된 근대 윤리학의 한계를 성찰하며 새로운 윤리적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다. 근대 정의 윤리는 칸트의 자율성 개념과 롤스의 정의론을 거쳐 콜버그의 도덕발달 이론으로 이어지면서 인간을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도덕 주체로 이해하였다. 이러한 전통은 근대 윤리적 기반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지만, 인간의 취약성과 상호의존성, 그리고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돌봄과 책임의 윤리적 차원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돌봄 윤리는 인간을 독립적 개인이 아니라 관계적이며 상호의존적인 존재로 이해하고, 돌봄과 책임, 관계와 응답성을 윤리의 핵심 개념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조안 트론토(Joan Tronto)는 돌봄 윤리를 개인적 덕목이나 사적

관계의 윤리에 머물지 않고 민주주의와 사회정의를 구성하는 공적 원리로 확장하였다. 그의 논의는 돌봄을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적 과제로 이해함으로써 돌봄의 위기를 해석하는 중요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지금까지 돌봄에 관한 논의는 주로 여성주의 윤리학이나 정치철학, 사회정책의 맥락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기독교사회윤리와 학문적 대화는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않았다. 인간을 관계적 존재로 이해하고 이웃 사랑과 공동체적 책임을 강조하는 기독교사회윤리는 돌봄 위기에 대해 중요한 윤리적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 기독교사회윤리와 돌봄 윤리의 대화는 정의를 돌봄으로 단순히 대체하기보다 정의와 돌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재구성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오늘날의 돌봄 위기를 이해하고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적 가능성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이론적 분석을 바탕으로 돌봄 윤리의 이론적 전개와 트론토의 돌봄 민주주의를 검토하고, 이를 기독교사회윤리의 관계적 인간 이해, 이웃 사랑, 공동선 및 교회 공동체의 관점에서 해석하고자 한다. 연구의 핵심 질문은 첫째, 트론토의 돌봄 민주주의가 돌봄의 책임과 공공성을 어떻게 재구성하는가, 둘째, 트론토의 돌봄 민주주의와 기독교사회윤리는 어떠한 이론적 접점과 차이를 가지며, 양자는 어떻게 상호 보완될 수 있는가이다.

분석 대상은 트론토의 『Moral Boundaries』와 『Caring Democracy』를 비롯하여 돌봄 윤리와 돌봄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주요 저작 및 국내의 연구문헌으로 설정하였다. 문헌은 돌봄 윤리의 형성과 정치적 확장, 돌봄 민주주의의 핵심 개념, 기독교사회윤리와 이론적 접점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핵심 문헌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분석은 트론토의 돌봄 민주주의의 핵심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후, 이를 기독교사회윤리의 관계적

인간 이해, 이웃 사랑, 공동선 및 교회의 공적 실천과 비교하고 분석하여 그 이론적 접점과 차이, 그리고 기독교사회윤리의 보완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II. 돌봄 윤리의 형성과 정치적 확장

1. 정의윤리에서 돌봄 윤리로

현대 윤리학의 주류를 형성해 온 정의 중심 윤리는 근대 계몽주의의 이성 중심주의와 자유주의적 개인관을 토대로 인간을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도덕 주체로 이해해 왔다. 이러한 전통의 철학적 기초를 마련한 칸트(Immanuel Kant)는 도덕성의 준거를 감정이나 구체적인 관계가 아니라 보편적 이성이 부과하는 정언명령에서 찾았다. 칸트에게 도덕적 주체는 자신의 욕구나 타자와의 관계에 의해 규정되는 존재가 아니라, 이성의 법칙에 따라 스스로를 규율하는 자율적 존재이다.¹⁾ 이러한 인간 이해는 롤스(John Rawls)의 계약주의 정의론과 콜버그(Lawrence Kohlberg)의 도덕발달이론으로 이어졌다. 롤스는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을 전제로 ‘원초적 입장’과 ‘무지의 베일’을 통해 공정성으로서의 정의를 정당화하였으며,²⁾ 콜버그는 보편적 정의의 원리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실천하는 능

1) 형이상학적 초석을 다진 칸트는 도덕성의 준거를 주체의 가변적인 감정이나 가치특수적인 구체적 상황이 아닌, 보편적 이성이 주체에 초월적으로 부과하는 정언명령의 형식성에서 구하였다. 칸트적 기획 속에서 도덕적 주체는 자신의 내적 경향성(Neigung)이나 타자와의 우연적 결속으로부터 존재론적으로 분리되어, 오직 선의지에 기반한 이성 법칙에만 복종하는 자율적(autonomous) 존재로 정립된다. Immanuel Kant,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백종현 역, 『도덕형이상학 정초』(서울: 아카넷, 2014), 48.

2) 칸트의 의무론적 전통은 롤스의 현대 계약주의 사회철학에 이르러 공적 정의의 원리로 고도화된다. 롤스는 가상의 ‘원초적 입장’과 ‘무지의 베일’이라는 인식론적 장치를 매개로, 주체의 구체적인 역사적 서사나 사회적 유대 관계를 방법론적으로 배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자충족적인 개인들 간의 계약 과정을 통해 ‘공정성으로서의 정의’를 도출하

력을 도덕성의 최고 단계로 설명함으로써 정의 중심 윤리를 발달심리학의 영역으로 확장하였다.³⁾

정의 중심 윤리는 인간을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도덕 주체로 이해하고, 보편적 원칙에 따른 합리적 판단을 윤리의 핵심으로 간주하였다. 이는 정의와 권리의 윤리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했지만, 인간 존재의 본질적 조건인 취약성과 상호의존성, 그리고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돌봄과 책임의 윤리적 차원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였다. 반면 돌봄 윤리는 인간을 관계성과 상호의존성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이해하며, 돌봄을 윤리의 중심 개념으로 재정립하였다.⁴⁾

정의 중심 윤리가 자율성과 보편적 원칙을 중심으로 도덕성을 이해하는 동안, 관계와 돌봄, 책임의 경험은 윤리학의 주변부에 머물렀다. 이에 대한 페미니스트 윤리학의 비판은 남성 중심의 도덕 경험을 보편적 기준으로 간주해 온 정의 중심 윤리를 재검토하면서 돌봄 윤리의 형성으로 이어졌다. 돌봄 윤리는 근대 윤리학이 전제해 온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개인이라는 인간관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고, 인간을 타자와 분리된 독립적 주체가 아니라 관계성과 상호의존성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이해하였다. 도덕성의 근거 역시 보편적 원칙과 권리에서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돌봄과 책임으로 이동하였다.

이러한 전환의 출발점은 캐롤 길리건(Carol Gilligan)의 연구에서 찾을 수 있다. 길리건은 콜버그의 도덕발달이론이 정의와 권리를 중심으로 한

고자 하였다. John Rawls, *A Theory of Justice*, 황경식 역, 『정의론』 (서울: 이학사, 2003), 36.

3) 콜버그는 칸트와 롤스의 정의 중심 윤리를 발달심리학적으로 계승하여, 보편적 정의의 원리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실천하는 능력을 도덕성의 최고 단계로 제시하였다. Lawrence Kohlberg, *The Philosophy of Moral Development: Moral Stages and the Idea of Justice*, 김민남 외 역, 『도덕발달의 철학』 (서울: 교육과학사, 2000), 172.

4) 마경희, “돌봄의 정치적 윤리: 돌봄과 정의의 이원론을 넘어,” 『한국사회정책』 17(3) (2010), 326.

도덕 경험을 보편적 기준으로 일반화하였다고 비판하면서, 인간의 정체성은 분리와 독립이 아니라 타자와의 연결과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고 주장하였다. 정의 윤리가 ‘분리된 자아’를 전제하였다면, 돌봄 윤리는 ‘관계적 자아’를 도덕적 실천의 주체로 이해한다.⁵⁾

넬 나딩스(Nel Noddings)는 길리건의 문제의식을 관계 윤리로 발전시켰다. 나딩스에게 관계는 인간 존재 이후에 형성되는 부차적 결과가 아니라 인간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근본 조건이다. 그는 도덕성을 보편적 규칙의 적용이 아니라 ‘돌보는 사람(one-caring)’과 ‘돌봄을 받는 사람(cared-for)’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상호적 실천으로 이해하였다. 특히 돌봄은 행위자의 선의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돌봄을 받는 사람의 응답과 수용이 포함될 때 비로소 윤리적 관계로 성립한다고 보았다.⁶⁾

관계성과 상호의존성에 대한 논의는 알래스데어 매킨타이어(Alasdair MacIntyre)의 인간 이해를 통해 한층 확장된다. 그는 인간을 ‘종속적인 합리적 동물(dependent rational animals)’로 규정하면서, 인간은 영유아기와 노년기뿐 아니라 삶의 전 과정에서 타인의 돌봄과 사회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고 설명하였다. 취약성은 자율성의 결여나 극복되어야 할 미성숙의 상태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보편적 조건이며, 상호의존성은 예외적 상황이 아니라 인간 삶의 기본 구조라는 것이다.⁷⁾ 이 관점은

5) 길리건의 공헌은 정의 윤리를 부정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정의 중심 윤리가 간과하였던 관계성과 돌봄을 윤리학의 핵심 범주로 복원하였다는 점에 있다. Carol Gilligan, *In a Different Voice*, 신현정 역, 『다른 목소리로』 (서울: 포도넷, 2011), 45-47.

6) 돌봄을 일방적 시혜가 아니라 상호적 관계의 실천으로 이해한 점은 나딩스 윤리학의 중요한 특징이다. Nel Noddings, *Caring: A Relational Approach to Ethics and Moral Education*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4), 4.

7) 이는 인간이 타인으로부터 분리되어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고 믿는 근대 자유주의적 인간관에 대한 정면 비판이다. Alasdair MacIntyre, *Dependent Rational Animals: Why Human Beings Need the Virtues* (Chicago: Open Court, 1999), 1-5, 63.

돌봄을 특정 대상에게 베푸는 선택적 행위가 아니라 인간 존재 자체에서 비롯되는 윤리적 요청으로 이해하도록 한다.

관계성과 상호의존성을 인간 존재의 근본 조건으로 받아들이면 윤리의 출발점도 달라진다. 도덕적 의무는 추상적 원칙이나 계약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취약성과 필요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돌봄 윤리는 권리와 의무를 중심으로 한 정의의 언어를 부정하기보다 관계와 책임의 차원으로 확장하였으며, 돌봄을 사적 덕목이 아닌 사회와 공동체를 구성하는 윤리적 원리로 이해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 논의는 이후 돌봄을 정치와 민주주의의 문제로 확장한 트론토의 돌봄 윤리로 이어진다.

2. 돌봄의 정치

사적 영역에서의 유대와 친밀성에 머무르는 관계의 윤리로 이해되던 돌봄 윤리는 트론토의 ‘돌봄의 정치화’를 통해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였다. 트론토는 자유주의 정치철학이 공적 영역을 이성과 정치, 시장과 정의의 영역으로, 사적 영역을 감정과 가족, 돌봄의 영역으로 구분해 온 전통을 비판하였다. 이러한 이분법은 돌봄을 정치의 주변부로 밀어내고 여성과 가족의 사적 책임으로 고착시키는 동시에, 돌봄을 둘러싼 권력과 불평등의 문제를 은폐해 왔다.

트론토는 돌봄을 개인의 덕목이나 사적 관계에 머무는 실천이 아니라 사회를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공적 활동으로 재정의함으로써, 돌봄 윤리를 정치철학의 영역으로 확장하였다. 그는 돌봄을 “가장 일반적인 수준에서, 가능한 잘살 수 있도록 우리의 ‘세상’을 유지하고 지속하며 복원하기 위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종의 활동으로 돌봄을 보아야 한다. 이 세계는 우리의 몸, 자아, 환경 등을 포함하는 복잡적이며 생명유지의 그물망으로 엮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⁸⁾라고 정의하였다. 즉,

돌봄은 인간 삶을 유지하는 사회적 실천인 동시에 권력과 자원의 배분, 사회적 책임을 둘러싼 정치적 문제이기도 하다. 돌봄을 어떻게 조직하고 누구에게 책임을 부여할 것인가는 사회가 어떠한 공동체를 지향하는지를 보여주는 정치적 선택이기 때문이다.⁹⁾

트론토는 돌봄 노동이 자본주의와 가부장제가 결합한 사회 구조 속에서 계급, 젠더, 인종의 권력관계에 따라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현실에 주목하였다. 사회적 권력을 가진 특권 계층은 돌봄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권한을 갖는 반면, 신체 노동과 위험을 수반하는 실제 돌봄은 여성과 이주노동자,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전가되어 왔다. 그는 이러한 구조를 ‘특권적 무책임(privileged irresponsibility)’이라고 비판하며, 돌봄의 문제를 개인의 도덕성 부족이 아니라 권력과 제도의 문제로 드러냈다.¹⁰⁾

돌봄의 정치는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는 정책적 요구에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돌봄노동을 사적 책임이나 무상 또는 저임금 노동으로 주변화해 온 사회구조를 재구성하려는 정치적 기획이다. 이에 따라 정치학의 핵심 질문도 ‘누가 무엇을 분배받는가’에서 ‘누가 누구를 어떠한 조건에서 돌보는가’라는 관계적 배치의 문제로 재구성된다.¹¹⁾ 돌봄은 공적 영역의 독립적 시민을 가능하게 하는 삶의 필수 조건이며, 모든 시민

8) Joan C. Tronto, *Moral Boundaries: A Political Argument for an Ethic of Care* (New York: Routledge, 1993), 103.

9) 기존 정치학이 삶의 필수적 조건인 돌봄을 공적 논의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돌봄 없는 정치이론’을 구축해 온 한계는 국내 학계에서도 심도 있게 분석되었다. 김희강, “돌봄과 돌봄 없는 정치이론,” 『한국정치학회보』 52(2)(2018), 205.

10) 트론토는 ‘특권적 무책임’을 상대적으로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이 직접 직면하지 않는 타인의 어려움과 돌봄의 필요를 외면할 수 있는 구조적 조건으로 설명하였다. Tronto, *Moral Boundaries*, 120-122.

11) 김희강, 강문선, “돌봄의 공공윤리: 에바 키테이(Eva F. Kittay) 이론과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사업,’” 『한국정치학회보』 44(4)(2010), 48.

은 돌봄을 받는 존재인 동시에 돌봄의 책임에 참여하는 존재로 새롭게 이해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사회는 어떠한 인간을 전제하며 어떠한 공동체를 지향하는가. 돌봄을 어떻게 조직하고 그 책임을 누구에게 분담할 것인가는 단순한 복지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성격을 규정하는 정치적 문제이다.

III. 돌봄책임의 정치에서 돌봄 민주주의로

『Moral Boundaries』에서 돌봄을 정치의 문제로 전환한 트론토는 후기 저작 『Caring Democracy』에서 그 논의를 민주주의 자체의 재구성으로 확장한다. 그의 관심은 더 이상 돌봄이 왜 정치적 문제인가를 설명하는데 머물지 않는다. 오히려 민주주의가 인간의 취약성과 상호의존성을 어떻게 반영하고, 돌봄의 책임을 어떠한 원리에 따라 사회적으로 조직해야 하는가를 묻는다. 트론토에게 돌봄 민주주의는 복지정책의 확대나 돌봄 서비스의 확충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목적과 시민권, 공동체, 정의를 돌봄의 관점에서 다시 이해하려는 정치철학적 기획이다.

1. 신자유주의 민주주의와 돌봄의 주변화

트론토는 민주주의를 단순한 정치제도나 의사결정 절차로 이해하지 않는다. 그의 관심은 민주주의가 어떠한 인간을 전제하며, 돌봄의 책임을 어떠한 방식으로 조직하는가에 있다. 트론토에게 민주주의의 핵심 과제는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돌봄의 필요와 책임을 공정하게 분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있다.

그는 자유주의 민주주의가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개인을 민주주의의 기

본 단위로 전제해 왔다고 비판한다. 자유주의 정치철학은 자유와 권리, 계약과 정의를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로 발전시켜 왔지만, 인간의 취약성과 상호의존성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시민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자율적 존재로 이해되었고, 돌봄은 민주주의의 핵심 의제가 아니라 가족과 개인이 담당해야 하는 사적 책임으로 주변화되었다.

이 같은 경향은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함께 더욱 강화되었다. 신자유주의는 인간을 시장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합리적 경제주체(homo economicus)로 이해하며, 경쟁과 효율, 자기책임을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로 정당화하였다. 그 결과 돌봄은 사회가 함께 조직해야 할 공적 책임이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사적 문제로 환원되었으며, 돌봄노동 역시 시장의 효율성과 비용 논리에 종속되었다. 인간은 서로를 돌보는 시민이라기보다 경쟁하는 경제적 행위자로 이해되었고, 민주주의 역시 시장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민주주의의 한계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구분하는 자유주의적 이분법에서도 드러난다. 정치와 시장, 정의는 공적 영역에 속하지만, 가족과 감정, 돌봄은 사적 영역으로 분리되었다. 이 구분은 돌봄을 민주주의의 핵심 의제에서 배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돌봄을 여성과 가족의 자연스러운 역할로 간주하는 사회 구조를 정당화하였다. 돌봄은 더 이상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정치적 과제가 아니라 개인의 희생과 헌신의 문제로 이해되었으며, 국가와 사회는 돌봄의 책임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에게 민주주의의 위기는 돌봄의 위기와 분리될 수 없다. 인간은 누구나 생애 전 과정에서 타인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상호의존적 존재이며, 누구도 자신의 노력만으로 독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없다. 그럼에도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는 개인 책임을 시민윤리의 핵심 원리로 강조하면서

돌봄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전가하였다. 민주주의의 과제는 개인에게 자기책임을 요구하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돌봄의 책임을 사회적으로 조직하고 공정하게 분담할 수 있는 정치적 조건을 마련하는 데 있다.¹²⁾

돌봄 민주주의는 복지정책을 확대하거나 돌봄서비스를 확충하는 정책적 제안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은 민주주의가 전제해 온 인간권과 시민권, 책임과 정의를 돌봄의 관점에서 다시 이해하려는 정치철학적 기획이다. 민주주의는 더 이상 자율적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절차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사회 구성원 모두가 돌봄의 필요와 책임을 함께 조직하고 분담하는 정치적 과정으로 새롭게 이해된다. 이 논의는 민주적 돌봄과 돌봄 시민권, 그리고 관계적 공동체에 대한 논의로 이어진다.

2. 돌봄 민주주의와 돌봄의 공적 조직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 트론토는 인간의 취약성과 상호의존성을 민주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 시민권과 책임, 공동체를 새롭게 구성한다. 그의 관심은 돌봄을 복지서비스나 가족의 책임으로 한정하지 않고, 돌봄을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공적 원리로 재정립하는 데 있다. 돌봄은 민주주의의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사회적 활동이며,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공적 과제이다. 따라서 돌봄은 더 이상 가족 내부의 도덕적 실천이나 복지서비스의 일부가 아니라 공동의 책임 아래 조직되어야 하는 공공선(public good)¹³⁾으로 이해되며, 개인의 선

12) Joan C. Tronto, *Caring Democracy: Markets, Equality, and Justice*, 김희강 · 나상원 역, 『돌봄민주주의: 시장, 평등, 정의』 한국어 개정판 제3판(서울: 박영사, 2024), 101-114.

13) 본 연구는 트론토의 돌봄 민주주의가 돌봄을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공적 원리로 이해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 본 연구자는 ‘공공선(public good)’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공공선’은 트론토가 직접 언급한 용어가 아니라, 돌봄의 공공성과 공동책임이라는 특징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한 해석적 표현이며, 기독교

의나 희생에 의존하는 행위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공적 실천으로 이해된다. 민주주의 역시 돌봄의 책임을 사회적으로 조직하고 공정하게 분담하는 정치적 과정으로 이해된다.

트론토는 민주적 돌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민이 자신을 돌봄 제공자이면서 동시에 돌봄 수혜자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적 돌봄은 돌보는 사람과 돌봄을 받는 사람을 고정된 집단으로 구분하지 않으며, 돌봄을 모든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책임지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로 이해한다.¹⁴⁾

이러한 공적 조직은 개인의 윤리적 실천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교육과 의료, 복지와 노동을 비롯한 사회제도는 경제적 효율성보다 돌봄의 필요를 우선하도록 재구성되어야 하며, 시민들이 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과 제도적 조건도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돌봄서비스를 공급하는 제도에 머무르지 않고, 돌봄의 책임과 자원을 시민들의 참여와 숙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조직하고 조정하는 정치적 과정이기 때문이다.

돌봄 민주주의는 시민권에 대한 이해도 새롭게 변화시킨다. 시민은 선거나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존재를 넘어 일상에서 서로의 필요를 인식하고 공동의 돌봄책임을 함께 수행하는 존재이다. 시민권 역시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는 법적 지위를 넘어 돌봄을 받을 권리와 돌봄에 참여할 책임을 함께 포함하는 관계적 시민권으로 확장된다.

돌봄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공동체는 계약과 이해관계에 의해 유지되는 개인들의 결사체가 아니라 서로의 취약성과 상호의존성을 인정하고 공동의 돌봄책임을 수행하는 관계적 공동체이다. 정의 역시 권리와 자원의

교사회윤리에서 논의하는 ‘공동선(common good)’과의 이론적 대화를 위한 개념적 연결점으로 사용하였다.

14) Tronto, 『돌봄민주주의: 시장, 평등, 정의』, 78-79.

형식적 분배를 넘어 누구도 돌봄에서 배제되지 않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실현된다.

3. 돌봄책임의 민주화와 돌봄 시민권

돌봄 민주주의는 돌봄을 공적으로 조직하는 데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주체인 시민을 새롭게 이해하도록 요구한다. 트론토에게 시민은 자유와 권리를 행사하는 독립적 개인이 아니라 돌봄을 주고받으며 공동의 삶을 유지하는 상호의존적 존재이다. 민주주의 역시 개인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정치제도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들이 돌봄의 책임을 함께 조직하고 분담하는 정치적 과정으로 이해된다.

트론토의 시민 이해는 자유주의 시민권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다. 자유주의 민주주의는 시민권을 권리와 자유를 보장받는 법적 지위로 이해해 왔지만, 트론토는 시민권이 돌봄의 책임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고 본다. 시민권은 돌봄을 받을 권리뿐 아니라 공동체의 돌봄에 참여하고 그 책임을 함께 감당하는 실천을 포함한다. 따라서 돌봄 시민권은 권리와 의무를 대립시키지 않고, 시민권을 관계적 책임에 기초한 민주적 실천으로 확장한다.¹⁵⁾

『Moral Boundaries』에서 제기한 특권적 무책임에 대한 비판은 『Caring Democracy』에서 돌봄책임의 민주화와 시민권의 재구성으로 발전한다. 트론토는 사회적 권력과 자원을 가진 일부 집단이 돌봄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권을 돌봄의 ‘무임승차권(passes)’이라고 표현한다. 무임승차권은 돌봄의 부담을 여성과 이주노동자, 저소득층 등 특정 집단에 집중시키는 반면, 사회적 특권을 가진 이들은 돌봄의 혜택은 누리면서도 실제 돌봄의 책임에서는 지속적으로 벗어나게 한다. 트론토는 민

15) 위의 책, 330-334.

주적 돌봄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임승차권이 회수되어야 하며, 돌봄의 책임이 시민 모두에게 공정하게 분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¹⁶⁾

돌봄책임의 민주화는 시민에게 새로운 역할을 요구한다. 민주 시민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순한 정치 참여가 아니라 돌봄의 부담이 누구에게 집중되고 있는지를 성찰하고, 그 책임을 공정하게 분담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처럼 돌봄 시민권은 권리를 보장받는 법적 지위를 넘어 공동의 돌봄 책임을 함께 수행하는 민주적 실천으로 확장되며,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유지되고 발전한다.

4. 민주적 돌봄과 관계적 공동체

돌봄 민주주의는 돌봄을 공적으로 조직하고 시민의 공동 책임을 강조하는 데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은 민주주의가 어떠한 공동체를 지향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트론토에게 민주주의는 상호 의존적인 시민들이 함께 돌봄의 책임을 수행하며 공동의 삶을 형성하는 관계적 공동체이다.

트론토는 기존의 네 단계 돌봄 과정에 ‘함께 돌보기(caring with)’를 추가하였다.¹⁷⁾ ‘함께 돌보기’는 돌봄의 단계를 하나 더 추가한 것이 아니다. 돌봄의 전 과정이 시민들의 공동 참여와 민주적 숙의, 책임의 분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하는 규범적 개념이다. 신뢰와 연대,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돌봄의 필요와 책임을 함께 판단하고 조정하는 민주적 실천이

16) 위의 책, 318-330.

17) 트론토는 『Moral Boundaries』에서 돌봄을 ‘돌봄에 대한 주목(caring about)’, ‘돌봄의 책임(taking care of)’, ‘돌봄의 제공(care-giving)’, ‘돌봄에 대한 응답(care-receiving)’의 네 단계로 구조화하고, 각각에 대응하는 주목성(attentioniveness), 책임성(responsibility), 역량(competence), 응답성(responsiveness)을 핵심 도덕 원리로 제시하였다. 이 틀은 돌봄이 어느 단계에서 배제되거나 왜곡되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을 제공한다. Tronto, *Moral Boundaries*, 105-108, 127-137.

며, 돌봄 전 과정을 통합하는 기준이 된다.¹⁸⁾

민주적 돌봄은 특정 개인의 도덕적 헌신이나 희생에 의존하지 않는다. 돌봄은 일방적인 보호나 시혜가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인식하고 책임을 나누며 공동의 삶을 유지하는 과정이다.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와 가족은 돌봄의 책임을 함께 분담해야 하며, 시민들은 돌봄의 조직과 평가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트론토는 민주적 돌봄의 핵심 조건으로 포용성을 강조한다.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과 돌봄을 받는 사람을 고정된 집단으로 구분하면 돌봄관계는 위계와 시혜의 구조로 굳어진다. 돌보는 사람이 필요를 일방적으로 규정하거나 상대를 수동적 대상으로 취급할 경우, 돌봄은 보호와 통제의 방식으로 변질될 수 있다. 민주적 돌봄은 누구도 돌봄의 관계에서 배제하지 않으며, 돌봄을 받는 사람의 필요와 경험, 응답이 돌봄의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것을 요구한다.¹⁹⁾ 돌봄의 질 역시 제공자의 선의만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돌봄을 받는 사람의 참여와 응답을 통해 지속적으로 평가되고 조정되어야 한다.²⁰⁾

관계의 민주화는 제도의 변화도 함께 요구한다. 교육과 의료, 복지와 노동은 경제적 효율성보다 돌봄의 필요와 질을 중심으로 조직되어야 하며, 시민들이 돌봄을 제공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과 제도적 여건도 마련되어야 한다. 노동시간과 돌봄휴가, 사회서비스와 공적 지원은 부수적인 복지정책이 아니라 민주적 돌봄을 기능하게 하는 사회적 조건이다.²¹⁾

민주적 돌봄은 돌봄의 제공 방식을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18) Tronto, 『돌봄민주주의: 시장, 평등, 정의』, 78-79.

19) 위의 책, 271-278.

20) 위의 책, 287-289.

21) 위의 책, 299-309.

돌봄의 필요를 판단하고 책임과 자원을 배분하며 그 결과를 함께 평가하는 전 과정을 민주화하려는 실천이다. 시민들이 서로의 취약성과 상호의존성을 인정하고 돌봄의 과정에 함께 참여할 때 민주주의는 공동의 삶을 지속적으로 형성하는 관계적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다. 트론토의 관계적 공동체는 인간을 관계적 존재로 이해하고 공동선을 공동체의 규범적 지향으로 이해하는 기독교사회윤리와 긴밀하게 연결된다.

IV. 기독교사회윤리에서 본 돌봄 민주주의의 함의

1. 인간의 관계성과 상호의존성

트론토의 돌봄 민주주의는 인간을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개인으로 전제해 온 자유주의적 인간관을 비판하고, 인간의 취약성과 상호의존성을 정치와 윤리의 출발점으로 제시하였다. 기독교사회윤리 역시 인간을 타자와 분리된 자기충족적 존재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을 형성하는 존재로 이해한다. 다만 기독교사회윤리는 인간의 관계성을 경험적 현실이나 정치적 전제에 머물게 하지 않고 인간 창조에 내재한 존재론적 조건으로 해석한다. 인간이 서로 의존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은 사회적 필요에 의해 사후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방식 자체에 속한다.²²⁾

기독교 전통에서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은 인간의 존엄성을 설명하는 핵심 개념이다. 하나님의 형상은 이성이나 의지, 자유와 같은 개인의 속성으로 환원되기보다 하나님과 타자, 세계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인간의 존재 방식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인간의 존엄성은 독립성과 자기충족성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이

22) Stanley J. Grenz, *The Social God and the Relational Self: A Trinitarian Theology of the Imago Dei*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1), 3-20.

웃과의 관계, 공동체 안에서의 상호책임 속에서 드러난다.²³⁾ 관계적 인간 이해는 삼위일체적 하나님 이해를 통해 더욱 심화된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랑과 교제 안에서 존재하시는 분으로 고백되며, 인간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타자와 관계를 맺고 공동의 삶을 형성하도록 창조되었다.²⁴⁾ 돌봄은 관계성에 외부적으로 부과된 의무가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피조물성을 인정하고 타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 방식을 구체화하는 실천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인간을 관계적 존재로 이해하면 의존성과 취약성에 대한 평가도 달라진다. 근대의 자율성 중심 인간관은 의존을 미성숙이나 결핍으로 간주하고 취약성을 극복해야 할 예외적 상태로 취급해 왔다. 그러나 인간은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타인의 돌봄과 사회적 관계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존재이다. 영유아기와 노년기, 질병과 장애의 시기뿐 아니라 건강한 성인의 일상도 수많은 사람의 노동과 돌봄, 제도적 지원에 기대고 있다. 의존성과 취약성은 특정 집단에만 해당하는 특수한 조건이 아니라 인간의 유한성과 피조물성을 드러내는 보편적 조건이다. 따라서 자율성과 의존성은 상호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다. 인간의 자율성은 타인의 돌봄과 사회적 조건 속에서 가능하며, 자신의 의존성을 인정하고 타인의 삶에 책임 있게 응답할 때 더욱 관계적인 의미를 갖는다.

돌봄은 이 관점에서 윤리적 의미를 복지서비스나 개인적 선행의 범위를 넘어 확장한다. 돌봄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시혜가 아니라 인간의 관계적 존재 방식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실천이다.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과 돌봄을 받는 사람은 고정된 두 집단이 아니며,

23) David Tarus, "Imago Dei in Christian Theology: The Various Approaches," *Online International Journal of Arts and Humanities*, 5(2016), 21-22.

24) John D. Zizioulas, *Being as Communion: Studies in Personhood and the Church* (Crestwood, NY: St. Vladimir's Seminary Press, 1985), 27-49.

모든 인간은 생애 전 과정에서 돌봄을 주고받는다. 돌봄은 인간이 자신의 유한성과 상호의존성을 인정하고 타자의 필요에 응답함으로써 공동의 삶을 지속하는 방식이다.

트론토의 관계적 인간 이해와 기독교사회윤리는 중요한 접점을 가지면서도 규범적 근거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트론토가 인간의 취약성과 상호의존성으로부터 돌봄책임을 민주적으로 조직해야 할 정치적 필요를 도출한다면, 기독교사회윤리는 관계성과 의존성 자체를 하나님의 형상과 창조질서에 속한 인간 존재의 조건으로 이해한다. 두 관점의 차이는 트론토의 논의를 대체하기보다 돌봄의 정치적 요구가 어떠한 인간 이해 위에 놓일 수 있는지를 보다 근원적으로 묻게 한다. 기독교사회윤리는 트론토의 관계적 인간 이해를 수용하면서도 돌봄을 민주적 제도의 필요에 한정하지 않고 인간이 타자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 방식의 문제로 확장하여 해석할 수 있다.

2. 돌봄의 소명과 이웃 사랑

관계적 인간 이해는 돌봄의 의미도 새롭게 한다. 인간이 본질적으로 관계적이고 상호의존적인 존재라면,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의 선의나 선택적인 덕목에 머물 수 없다. 돌봄은 인간 존재 자체에서 요청되는 윤리적 실천이며 공동체를 유지하는 책임이다. 기독교사회윤리는 돌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 방식으로 이해한다. 예수는 율법의 핵심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였다(마 22:37-40).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나며, 이웃 사랑은 단순한 자비나 동정의 감정에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타인의 삶에 책임 있게 응답하는 적극적인 실천이다. 특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눅 10:25-37)는 이웃의 범위를 혈연과 민족, 종교적 경계를 넘어 고통받는 모든 타자로 확장함으로써,

돌봄을 인간관계의 부차적인 덕목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식으로 제시한다.

트론토가 돌봄을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시민들이 함께 감당해야 할 책임으로 이해한 점은 기독교사회윤리와 중요한 접점을 이룬다. 그러나 돌봄책임의 근거를 어디에 두는가에서는 두 관점 사이에 분명한 차이도 존재한다. 트론토의 돌봄 민주주의에서 돌봄은 모든 시민이 함께 분담해야 할 민주적 책임이며, 그 정당성은 평등한 시민권과 공동의 정치적 삶에서 형성된다. 이에 비해 기독교사회윤리에서 돌봄은 시민적 의무이기 이전에 하나님 사랑에 응답하여 타자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는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바라본다. 이 차이는 돌봄책임을 이해하는 방식에서도 서로 다른 강조점을 낳는다. 기독교사회윤리는 트론토가 제시한 돌봄책임의 민주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되, 제도적 책임만으로는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타자에 대한 응답과 헌신의 차원을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보완할 수 있다. 동시에 이웃 사랑 역시 개인의 선의나 자기희생으로 환원되지 않도록 돌봄의 사회적 조건과 책임의 공정한 배분이라는 트론토의 비판을 함께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기독교사회윤리가 트론토의 돌봄 민주주의를 비판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은 돌봄의 민주적 조직 원리를 인정하면서도, 그 윤리적 근거를 하나님과 이웃의 관계에 기초한 기독교적 인간 이해에서 더욱 분명하게 밝히는 것을 의미한다.

3. 공동선(common good)과 돌봄의 공공성

돌봄은 개인의 윤리적 덕목이나 사적 실천에 머물지 않는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공동체 안에서 사회적 책임으로 실현되어야 하며, 그 지향은 공동선의 증진에 있다. 기독교사회윤리는 공동선을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부여한 존엄을 실현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질서를

지향하는 규범적 원리로 이해한다.²⁵⁾

공동선이 사회 속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공적 구조와 책임의 조직이 필요하다. 트론토는 돌봄을 시민 모두가 함께 조직하고 책임져야 할 공적 과제로 이해하며, 민주주의의 핵심을 돌봄의 공정한 조직과 책임의 분담에서 찾는다. 돌봄은 개인의 선의나 가족의 희생에 맡겨질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조직하고 책임져야 하는 공적 실천이며, 민주주의는 돌봄의 책임을 사회적으로 조정하고 분담하는 정치적 과정이다.

돌봄은 공동선을 구체적인 삶 속에서 실현하는 핵심적인 사회적 실천이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상호의존적인 존재인 만큼 공동선은 제도나 정책만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서로의 필요에 응답하고 돌봄의 책임을 함께 나누는 관계 속에서 공동선은 비로소 사회적 현실이 된다.

공동선과 돌봄의 공공성은 모두 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지향하지만, 규범적 근거와 이론적 강조점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트론토는 돌봄의 필요와 책임, 자원을 민주적으로 조직하고 누구도 돌봄에서 배제되지 않는 사회적 조건의 형성에 초점을 둔다. 기독교사회윤리는 공동선을 하나님이 부여한 인간의 존엄과 공동체적 삶이 함께 실현되는 규범적 지향으로 이해한다. 기독교사회윤리는 트론토가 제시한 돌봄의 공공성을 공동선의 관점에서 수용함으로써 돌봄을 제도적 책임을 넘어 인간의 존엄과 공동체를 형성하는 사회윤리적 실천으로 확장할 수 있다. 반대로 트론토의 논의는 공동선이 추상적 이상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25) Max L. Stackhouse, *Public Theology and Political Economy: Christian Stewardship in Modern Society*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1987), 2-5. 스택하우스는 공공신학을 기독교의 가치와 전통을 공공영역에서 공동선을 위해 실천하는 신학으로 이해하며, 교회의 공적 책임과 사회 참여를 강조한다. Stackhouse의 공공신학에 대한 국내의 상세한 논의는 김승환, “맥스 L. 스택하우스(Max L. Stackhouse)의 공공신학에 관한 연구,” 『신학과 실천』 89(2024), 980-982를 참조하라.

돌봄의 책임이 실제 사회에서 어떻게 조직되고 분담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성찰해야 함을 요청한다. 두 관점은 서로 다른 규범적 토대에서 출발하지만, 돌봄을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이해하고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4. 교회와 민주적 돌봄공동체의 실천

돌봄의 책임을 공동체가 함께 나누고 실천하는 민주적 돌봄공동체의 형성에는 국가와 시민사회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공동체의 참여가 요구된다. 교회 역시 돌봄의 책임을 함께 나누고 사회적 돌봄에 참여할 때 민주적 돌봄공동체는 사회 속에서 구체화될 수 있다. 기독교사회윤리는 교회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공동체 안에서 실천하는 공적 공동체로 이해하며, 돌봄은 교회의 부가적인 사회봉사가 아니라 교회의 존재를 구성하는 본질적 사명이다. 교회는 돌봄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고 공동체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사회 속에서 드러낸다.

교회의 돌봄 실천은 신약성경에서부터 공동체의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난다. 초대교회는 재산을 서로 나누고 가난한 이들을 돌보았으며(행 2:44-47; 4:32-35), 공동체 안에서 돌봄의 책임을 조직적으로 수행하였다(행 6:1-6). 돌봄은 교회의 부수적인 기능이 아니라 복음을 사회 속에서 구현하는 공적 실천이며, 예배와 선교, 친교와 함께 교회의 중요한 사명으로 이해될 수 있다.

오늘날 교회가 민주적 돌봄공동체를 실천한다는 것은 돌봄을 특정 목회자나 소수의 봉사자에게 맡기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동체 전체가 돌봄의 책임을 함께 나누는 구조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일방적인 수혜 대상으로 바라보기보다, 돌봄의 필요를 함께 발견하고 실천 방안을 함께 논의하며, 돌봄을 받는 이들의 의견과 경

힘이 공동체 안에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참여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 복지기관과 시민사회, 지방정부 등과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돌봄이 특정 가족이나 개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공동체적 연대와 책임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 교회의 돌봄은 내부 봉사활동에 머물지 않고 지역사회와 책임을 함께 나누는 공적 실천으로 확장될 때 민주적 돌봄공동체를 현실 속에서 구체화하는 중요한 실천이 된다.

트론토는 민주주의가 시민 모두가 돌봄의 책임을 함께 조직하고 분담할 때 지속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관점은 교회의 돌봄 역시 특정 개인의 헌신에 의존하기보다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고 참여하는 구조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교회는 국가의 복지 기능을 대신하는 기관도 아니며, 시장의 한계를 보완하는 자선단체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 교회는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돌봄의 책임을 함께 나누고, 사회적 약자와 취약한 이들의 목소리가 공동체 안에서 존중받도록 연결하는 공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돌봄을 가족이나 특정 집단의 책임으로 환원하지 않고 공동체 전체가 함께 감당해야 할 책임으로 인식하도록 사회적 연대와 참여를 확대하는 일도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다.

교회가 지향하는 민주적 돌봄공동체는 특정 구성원만을 위한 폐쇄적 공동체가 아니다. 사회적 약자와 가난한 이웃, 장애인과 노인, 이주민 등 사회적 관계에서 배제된 이들에게 자신을 개방하고, 인간의 존엄을 존중하며 돌봄의 책임을 함께 실천하는 공동체이다.

교회의 돌봄 실천은 트론토의 돌봄 민주주의와 중요한 접점을 가지지만, 두 관점을 동일한 차원에서 이해할 수는 없다. 트론토가 시민들의 참여와 숙의를 통해 돌봄책임을 민주적으로 조직하는 정치공동체에 주목한

다면, 교회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공동체의 삶 속에서 실천하도록 부름받은 신앙공동체라는 고유한 정체성을 가진다. 기독교사회윤리는 트론토의 돌봄 민주주의를 수용하면서도 교회의 돌봄을 신앙적 헌신에 머물게 하지 않는다. 교회의 돌봄은 참여와 숙의, 공동책임과 응답성이 함께 작동하는 공적 실천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돌봄을 받는 이들의 목소리 역시 공동체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사회윤리가 돌봄 민주주의를 비판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은 교회의 돌봄을 신앙적 소명과 민주적 참여가 함께 작동하는 공적 실천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V. 결론

본 연구는 돌봄 윤리의 전개 과정을 검토하고, 조안 트론토의 돌봄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돌봄이 사적 윤리를 넘어 민주주의와 공동체를 재구성하는 정치철학으로 발전하였음을 살펴보았다. 트론토는 인간의 취약성과 상호의존성을 민주주의의 출발점으로 이해하고, 돌봄을 시민 모두가 함께 조직하고 책임져야 하는 공적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자유주의 정치철학이 간과해 온 돌봄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는 트론토의 돌봄 민주주의를 기독교사회윤리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재해석하였다. 인간의 관계성과 상호의존성을 하나님의 형상과 창조질서에 기초한 존재론적 특성으로 이해하고, 돌봄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윤리적 소명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돌봄을 개인의 도덕적 실천을 넘어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하는 공적 과제이자 사회윤리의 핵심 원리로

제시하였다.

오늘날 돌봄은 복지정책의 한 영역이나 개인의 선행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돌봄은 인간 존재와 공동체, 민주주의와 사회정의를 새롭게 이해하는 핵심 개념이며, 기독교사회윤리 역시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돌봄의 공공성과 공동체성을 더욱 심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교회와 지역사회, 공공정책을 포괄하는 다양한 실천적 논의와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독교사회윤리에서 돌봄은 인간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부차적인 윤리가 아니라, 관계적 인간 이해에 기초하여 공동선을 실현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공동체 안에서 구현하는 사회윤리의 핵심 원리이다.

참고문헌

- 김승환. “맥스 L. 스택하우스(Max L. Stackhouse)의 공공신학에 관한 연구.” 『신학과 실천』 89(2024), 955-988.
- 김희강. “돌봄과 돌봄 없는 정치이론.” 『한국정치학회보』 52(2)(2018), 203-224.
- 김희강, 강문선. “돌봄의 공공윤리: 에바 키테이(Eva F. Kittay) 이론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한국정치학회보』 44(4)(2010), 45-72.
- 마경희. “돌봄의 정치적 윤리: 돌봄과 정의의 이원론을 넘어.” 『한국사회정책』 17(3)(2010), 319-348.
- Gilligan, Carol. *In a Different Voice*. 신현정 역. 『다른 목소리로』. 서울: 포토넷, 2011.
- Grenz, Stanley J. *The Social God and the Relational Self: A Trinitarian Theology of the Imago Dei*.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1.
- Kant, Immanuel.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백종현 역. 『도덕형이상학 정초』. 서울: 아카넷, 2014.
- Kohlberg, Lawrence. *The Philosophy of Moral Development: Moral Stages and the Idea of Justice*. 김민남 외 역. 『도덕발달의 철학』. 서울: 교육과학사, 2000.
- MacIntyre, Alasdair. *Dependent Rational Animals: Why Human Beings Need the Virtues*. Chicago: Open Court, 1999.
- Noddings, Nel. *Caring: A Relational Approach to Ethics and Moral Education*.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4.
- Rawls, John. *A Theory of Justice*. 황경식 역. 『정의론』. 서울: 이학사, 2003.
- Stackhouse, Max. *Public Theology and Political Economy: Christian Stewardship in Modern Society*.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1987.
- Tarus, David. “Imago Dei in Christian Theology: The Various Approaches.” *Online International Journal of Arts and Humanities*. 5(2016), 18-25.
- Tronto, Joan. *Moral Boundaries: A Political Argument for an Ethic of Care*.

New York: Routledge, 1993.

_____. *Caring Democracy: Markets, Equality, and Justice*. 김희강·나상원 역.
『돌봄민주주의: 시장, 평등, 정의』. 한국어 개정판 제3판. 서울: 박영사, 2024.

Zizioulas, John, *Being as Communion: Studies in Personhood and the Church*.
Crestwood, NY: St. Vladimir's Seminary Press, 1985.

논문투고일: 2026년 07월 15일

심사개시일: 2026년 07월 17일

게재확정일: 2026년 08월 14일

• 국 문 초 록 •

한국 사회의 돌봄 위기는 복지서비스의 부족을 넘어 인간의 취약성과 상호의존성, 돌봄책임의 사회적 조직에 관한 윤리적 과제를 제기한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이론적 분석을 통해 돌봄 윤리의 형성과 정치적 확장 과정을 검토하고, 조안 트론토의 돌봄 민주주의를 기독교사회윤리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특히 트론토가 제시한 관계성, 돌봄책임, 민주적 참여의 의미를 기독교사회윤리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였다.

트론토의 돌봄 민주주의는 돌봄을 공적 책임과 민주적 참여의 원리로 재구성한다. 기독교사회윤리는 이를 관계적 인간 이해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공동선, 교회의 공적 실천이라는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민주적 돌봄공동체의 실천을 통해 돌봄의 규범적 근거와 공동체적 실천을 확장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돌봄은 개인의 윤리를 넘어 민주적 책임과 공동선을 실현하는 사회윤리의 핵심 원리이며, 교회는 민주적 돌봄공동체를 실천하는 공적 공동체로 자리매김한다.

주제어: 돌봄 윤리, 조안 트론토, 돌봄 민주주의, 민주적 돌봄공동체, 기독교사회윤리
